논어 6편 옹야 14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不有祝鮀之佞，而有宋朝之美，難乎免於今之世矣。」

독음 · 자왈 불유축타지녕 이유송조지미 난호면어금지세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말재주 없이 외모만 뛰어나서는 당시 세상에서 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탄식이다. 이 장에는 다른 해석도 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不 아닐 불 / 有 있을 유

祝 빌 축 축 / 鮀 모래무지 타 타 / 之 갈 지 / 佞 재주 녕 녕

而 말이을 이 / 宋 송나라 송 송 / 朝 아침 조 조 / 美 아름다울 미 미

難 어려울 난 난 / 乎 어조사 호 / 免 면할 면 면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

今 이제 금 금 / 世 세상 세 세 / 矣 어조사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